

# 용서하리라 그러나

출 34:1-17

2021년 10월 19일(화)

1.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두 번 기록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그 돌판에 손수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32:16,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런데 두 번째는,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어 만들라고 하시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하십니다.

1절, “...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첫 번째와는 달리 두 번째는 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돌판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돌판을 산 아래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판이라고 해서 그 돌판을 우상처럼 섬겼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돌판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것은 돌판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을 기록해 주실 때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게 하시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돌판은 형식이라면, 말씀은 내용입니다.

물론 내용은 형식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형식만 따지게 되면 그것이 자칫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라고 해서 돌판을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섬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책은 돌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은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섬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돌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출판사, 어떤 버전의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판은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시고, 그 돌판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겁니다.

## 2.

5-7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속성을 선포하십니다.

“... 여호와와 이름을 선포하실 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에 대한 벌은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이라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이나, 분노나, 게으름이나, 악을 행하는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죄는 용서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댓가는 치러야 합니다. 벌은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곧장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댓가를 다 치를 때까지 그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는 용서 받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면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 3.

10-1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이란 구체적으로 11절입니다.

“...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들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12-17절까지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5절에서, 두 번이나 “네가 들어가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12절 하반절에,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가 자칫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자칫 나쁜 친구와 어울리다가 그 때문에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쁜 친구들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울리지 마라. 올무에 빠질 수 있단다’...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것은,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투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흘러갈 때 질투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훗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실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순종입니다.

#### 4.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돌판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책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책만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성경책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악과 잘못과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행할 일을 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죄를 다스리고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됩시다.

이를 위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 합시다.